

여수시, 농어업인 단체와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사용 협약'



1인당 60만 원 여수사랑상품권 일괄 지급 "선제적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여수시가 9,969명의 농어민에게 60여억 원의 공익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가운데, 지급 첫째 날인 24일 여천농협 화양지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사용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김종명 NH농협은행 여수시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농·축·수협, 농어민단체가 참여했다. 협약서에는 상품권 유효기한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 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위해 가급적 6월 말까지 조기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

겼다. 또한 지역농협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배부에 노력할 것과, 농어민은 마을별 환경보전을 위한 정례교육과 농산어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감염예방에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농어민공익수당을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지

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3월 말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추진

오늘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등기우편 신청접수

순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순천시에 6개

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시는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조기폐차 1300여대, LPG화물차 구입 1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5일까지이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

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영업용, 생계형,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에도 신차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노후경유차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신차구매보조금 400만 원을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고흥우주발사전망대

보성군, 6000억 원 규모 신규사업 국비 확보 총력

보성군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6000억 원 규모의 신규·현안 사업을 발굴·선정, 국비 확보에 나섰다. 22일 보성군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사업은 농업축산 해양 분야 여차지만 국가정책 반영원 조성, 문화산 선도시업장 에너지 자립형 산악 자연치유관광단지 조성, 고품질 가우라 생산시설 조성사업, 체류형 귀농귀촌사관학교 조성 등이 있다. 문화관광 분야는 역사이팅 패밀리 복합 테마파크 조성사업, 별교종합 스포츠시설 조성, 회천생태공원 야구장 제2구장 조성 등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보성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방범통합안전망 시스템 구축 등이다. 보성군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스마트 체육시설 조성, 사회복지시설 그린 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의 사업도 발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새봄맞이 봄꽃 식재 시행 총 36종 261만 본 생산 계획...봄꽃 17종 124만 본 예정



광양시가 봄을 맞이해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시가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봄꽃 식재에 돌입했다. 시는 올해 총 36종 261만 본의 꽃을 생산할 계획이며, 봄꽃으로 팬지, 금잔화, 비올라, 데이지, 석죽, 꽃잔디 등 17종 124만 본을 생산해 시가지 주요 도로변과 읍면동에 심을 예정이다. 식재지는 사람과 차량 왕래가 잦은 시가지 도로변 31개소에 설치된 화단 6,730㎡, 화분 2,145개이며, 주요 식재 대상지는 서천변 피화단,

석정 삼거리, 거성주유소 앞, 광양역 앞, 시청사거리, 서천교, 서산교, 백운육교 아래, 금호대교 입구 등이다. 시는 컨부두사거리의 화단 식재를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 시가지 봄꽃 식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4월 5부터 1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튼질, 리빙스턴 데이지, 가자니아, 베베나, 팬지 등 16종의 다양한 봄꽃을 식재해 전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우울함에 빠진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연송 기술보급과장은 "광양시는 여름과 가을에도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을 시가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도록 고품질의 꽃 생산과 식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새로운 광양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고흥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 수도권 관광객 즐겨 찾는 지역 확인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카드사용 증가율 국내 세 번째

고흥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도권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2020년 신한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타지역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이 고흥군은 2018년에 비해 2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가율은 강원 고성(47%)과 양양(44%)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자료는 신한카드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의 2021년 소비 트렌드를 reVALUE(재평가)로 선정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그동안 유명 관광지도 알려진 지역보다 청정지역 이미지가 강

하고 안전한 관광지를 선호하는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2020년 고흥군의 관광객수는 328만 명으로 2018년 보다 27% 감소하였음에도 수도권 거주자의 카드 소비액이 25%나 증가한 것은 구매력을 가진 가족단위 청장년층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특산물 판매장 등의 이용률도 증가하여 군민의 관광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꾸준히 고흥을 방문함에 따라 관광지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고흥을 '청정하고 안전한 관광1번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